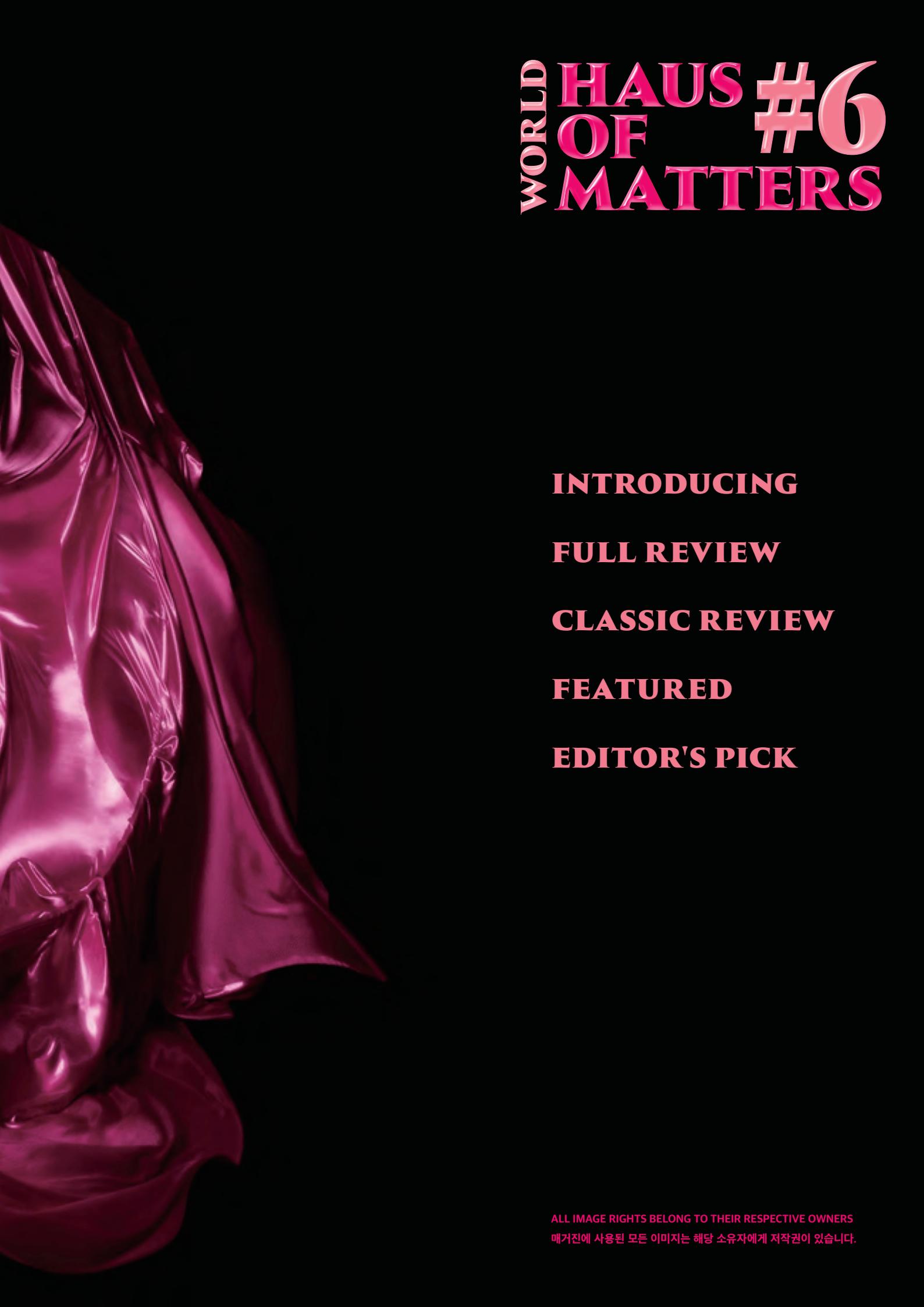




WORLD

HAUS #6  
OF MATTERS





# WORLD HAUS #6 OF MATTERS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 INTRODUCING

아이언

골짜 45 SongChico 월남





---

**ALBUM** **CZARTIFICIAL INTELLIGENCE**

---

**ARTIST** **CZARFACE**

---

**TRACK** 1. Czarchimedes' Death Ray / 2. Blast Off / 3. All That For A Drop Of Blood / 4. You Know My Style (Ft. Nems) / 5. Mama's Basement / 6. Frenzy In A Far Off World (Ft. Frankie Pulitzer) / 7. Czarsenic / 8. Gatecrasher (Ft. Doctor Destruction & Logic) / 9. Sirens / 10. Helicopter (Ft. Godfather Don & Kool Keith) / 11. One Eleven Chelsea / 12. Marvel At That (Road Trip) / 13. Live From Carnegie Hall (Ft. Kool Keith) / 14. Together

---

**DATE** 2023.12.01

---

**EDITOR** 공ZA

---

힙합 씬의 골든 에라를 풍미했던 크루 Wu-Tang Clan의 멤버였지만, 정작 본인의 솔로 활동에선 크게 빛 발하지 못 했던 인스펙타 덱(Inspectah Deck)은 침수되어 세상에 나오지 못 한 첫 정규 앨범의 원한이라도 갚듯 언더그라운드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던 7L & Esoteric(이하 7LES)와 차페이스(CZARFACE)라는 트리오를 구성하며 수많은 앨범을 발표한다. Todd Spadafore와 7LES의 프로듀서 7L이 뭉친 The Czar-Keys가 조립한 사운드 아래, 팀을 결성한지 10년이 된 것을 자축하듯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앨범을 전개한다. MF DOOM의 짙은 영향이 느껴지는 각 트랙의 인트로, 아웃트로에서의 보이스 샘플을 통해 사운드의 유기성을 확보했고, 익살스러우면서도 건조한 블랙 프로덕션 하에 두 플레이어 인스펙타 덱과 에소테릭(Esoteric)의 벌스가 더해진다. 인스펙타 덱은 마디의 끝에 알맞게 떨어지는 깔끔한 정박 랩을 선보이고, 에소테릭은 다음절 라임을 유려하게 구사함과 동시에 마디 사이의 박자를 좀 더 유려하게 활용한다. 두 래퍼의 상호보완적인 모습과 함께, 피처링으로 참여한 NEMS, Frankie Pulitzer, Logic, Kool Keith 등의 래퍼들은 차페이스와는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앨범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환기한다. 보이스 샘플을 사용하기는 했음에도 앨범 내 사운드의 흐름이 일관적이지 않은 게 아쉽기는 하나,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하면서도 적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베테랑의 품격이 느껴진다.



---

**ALBUM** **Flex Musix**

---

**ARTIST** **OsamaSon**

---

**TRACK** 1. Blonde / 2. Baghdad / 3. All Star / 4. For Da Flex / 5. Worst Part / 6. Trenches / 7. Nothing / 8. 3x / 9. Boss Up / 10. Kills / 11. Kome Thru / 12. Me When / 13. Uno / 14. Str8 Flexin / 15. Congrats / 16. Pop ❤ / 17. Talking 2 A Ghost

---

**DATE** 2023.12.08

---

**EDITOR** SongChico

---

肯 카슨(Ken Carson)은 <A Great Chaos>를 통해 다양한 프로덕션을 보여주며 Opium식 하드코어 레이지의 범주를 넓혔고, 그 결과 레이지 씬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肯 카슨의 팬 입장에선肯 카슨의 카피캣, 또 누군가는肯 카슨의 라이벌이라 부르는 오사마손(OsamaSon)이 그의 두 번째 정규앨범 <Flex Musix>를 발매하였다. 오사마손 또한肯 카슨의 경우처럼 다양한 사운드와 레이지의 결합을 시도했지만, 이는 오히려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침처럼 들리곤 했다. 기존에 오사마손이 주로 보여주던 다크 플러그와 레이지를 결합한 트랙들은 여전히 앨범 내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힙합의 다른 하위 장르들에서 주로 사용되던 악기들이 더욱 자주 등장했다. 마지막 트랙 'Talking 2 A Ghost'에선 기타까지 꺼내 들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엔 성공할 것'이라며 야망을 내비치던 오사마손은 호평을 받았던 전작 <Osama Seaon>의 다크 플러그 사운드를 떨쳐냈다. 더욱 다채로운 사운드로 돌아온 본 작을 통해肯 카슨이라는 이름을 벗어내는데 성공했고, 올해 젊은 래퍼들을 통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뤄낸 레이지 씬에 자신의 이름 또한 새겨 넣었다.



ALBUM I HOPE YOU'RE HAPPY

ARTIST Night Lovell

TRACK 1. MORRISON / 2. WHO IS THIS WEIRDO ? / 3. MY DAY IS RUINED ! / 4. GOLDEN TICKET (Ft. The Time Traveller) / 5. SUNDAY / 6. LIFE SUCKS SO WE FUCK (Ft. ZillaKami) / 7. PEEK-A-BOO / 8. SUCKS TO BE YOU :/ / 9. FREAK (Ft. Freddie Dredd) / 10. EYE SPY / 11. ALIVE EVEN WHEN I DIE / 12. COLD SHOULDER

DATE 2023.12.08

EDITOR 45

익스페리멘탈 힙합 속 호러코어 힙합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준 나이트 로벨(Night Lovell). <Concept Value>부터 <GOODNIGHT LOVELL> 등 그동안 그가 보여준 행보는 마치 외길 인생같이 한 호러코어만 10년 동안 계속 해왔고, 이 때문일까 힙합 팬들에게 있어서 '호러코어' 그 자체인 그의 앨범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작 역시 호러코어 힙합이지만 전작과 다른 점은 본작을 단순 호러코어 힙합 하나만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MY DAY IS RUINED!"에선 하이햇과 베이스의 비중을 더 높이면서 다크 트랩적 요소를 가미했으며, "SUNDAY"와 "SUCCS TO BE YOU :/"는 싸늘한 피아노 건반 위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비트가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락 사운드를 차용한 "ALIVE EVEN WHEN I DIE"도 재미있는 트랙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의 장르인 호러코어 힙합 특성상 앨범 청취 중 유사함으로부터 비롯된 피로감은 필연적이었으며, 매끄럽지 않은 믹싱과 그의 목소리 등 호불호적인 요소는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전작들보다 더 암울해지고 무게감 있는 비트 위에 그가 내뱉는 가사들은 더 예리해졌다. 설령 한 장르만 고집하더라도, 그의 음악은 점진적이고 일방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ALBUM We Only Talk About Real Shit When We're Fucked Up

ARTIST Bas

TRACK 1. Light of My Soul ❤ / 2. Black Jedi / 3. Choppas / 4. Home Alone by J. Cole & Bas / 5. Risk by FKJ & Bas / 6. Decent by Bas & Amaarae ❤ / 7. Ho Chi Minh / 8. 179 Deli by Bas & AJ Tracey / 9. Passport Bros by J. Cole & Bas / 10. Testify by Bas & Sha Sha / 11. U-Turn by Bas, Blxckie & A\$AP Ferg / 12. Paper Cuts by J. Cole & Bas / 13. Diamonds / 14. Yao Ming / 15. Dr. O'blivion / 16. Khartoum by Bas & Adekunle Gold / 17. Wait On Me by Bas & FKJ

DATE 2023.12.15

EDITOR 앞날

래퍼 바스(Bas)의 <Milky Way> 이후, 5년 만의 복귀 앨범 <We Only Talk About Real Shit When We're Fucked Up>은 어떤 앨범인가. 어쩌면 첫 트랙 "Light Of My Soul"의 드럼리스 비트 위에서 진심을 고백하는 장면으로부터 촉발되는 내용이 아닐까. 본작의 주 특징은 다양하게 펼쳐놓은 장르에 있다. 드럼리스 오프닝을 기두로 트랩, 블랙, R&B, 그리고 아프로비트까지 소화하는 바스의 역량은 분명 칭찬받을 부분이다. 반면 다른 의미에선 본작이 전작을 답습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여러 피쳐링 기용으로 앨범의 지루함을 덜어주기는 하나, 넓게 펼쳐놓은 장르만큼 흐릿해진 주제의 모습은 첫 트랙의 감동과 비견되어 아쉽게 다가온다. 그러나 전작보다 발전한 점 역시 눈에 띄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하드웨어가 더욱 탁월해졌다는 점이다. 어쩌면 솔로 트랙에서 개인적 감정이 진실되게 느껴지는 것도 여러 트랙을 걸쳐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겠다. 단순히 상업적인 팝 랩이 아닌 개인적인 일화를 다루는 앨범으로 진일보했다는 점은, 바스 개인에게도 MC의 길에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 FULL REVIEW

Haunted  
Nation

ONCIEI  
45

PINK  
FRIDAY 2  
GAG CITY DELUXE

ONCIEI  
SongChico

# Haunted Nation Hackle

에디터 45



치프 키프(Chief Keef)의 앨범 <Finally Rich>의 발매 이후 트랩의 하부 장르인 드릴이 탄생했고, 원조인 시카고 드릴과 그를 넘어선 영국의 UK 드릴까지 최근 가장 핫한 장르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됐다. <Finally Rich>를 통해 Lil Durk와 King Von의 메인 사운드가 정립되었지만, 단순 드릴이란 장르 외에 위 앨범을 양분 삼아 여러 갈래의 장르와 사운드, 랩 스타일 등 다방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중 해클(Hackle)은 <Finally Rich> 속 비단 사운드를 넘어 시카고 드릴의 원초적인 미와 멋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앨범 커버 속 폭력성과 하드함을 온전히 자신의 음악으로 소화해 내고 말았다. 그의 음악 스타일에 대해 말하자면, 해클이 속한 Sematary 중심의 Haunted Mound 크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호러코어 힙합과 하드 트랩의 경계를 오가는 사운드를 만들며, 음악적으로 호러코어를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기조만큼은 치프 키프의 폭력성, 마초적인 매력과 Black Kray의 세기 말 감성과, 마약과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탐닉한다.



위 크루의 멤버들이 호러코어와 락의 요소에 치중하여 음악을 만든다면, 해클은 이들의 관점에서 약간 방향을 틀다고 볼 수 있다. 호러코어보단 하드 트랩의 향을 더 탐 닙한 그는 옛 시카고 드릴에서 나오는 폭력성과 턴업 문화를 더 깊게 파고든다. <Haunted Nation>은 가히 <Finally Rich>의 완벽한 현대적 해석이라 평할 수 있다. 이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저분함에서 나오는 광기이다. 다른 하드 트랩들과 다르게, 해클은 단순히 비트를 깨지게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맥심 자체를 일부러 어지럽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폭력성과 중첩되어 알싸한 질감을 주조해낸다. 또 일반 하드 트랩들은 불규칙적이고 무작정 '어지럽힌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앨범은 "Tose", "Get Sum", "No Reason" 등 시카고 드릴의 고유 특성인 불규칙적인 하이햇에 집중하고 곡의 클라이맥스와 저점에 확연한 차이를 둔다. 한 구절 혹은 단순한 흑으로 유도를 하면서 규칙적인 패턴 하에 리스너들을 턴업하게 하는 전략이다.

프로듀서들의 사운드 또한 귀에 뛴다. 앨범의 인트로곡인 "Make You Dane"와 "De\_Dust2", "Winning Team" 등 트랙의 인트로에 삽입됐을 땐 하이텐션 전 빌드업의 역할을 수행하며 곡 전체가 붕 뜨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런 하이텐션의 하드 트랩의 경우 피로감으로 인해 빨리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곡 중간에 디제이 믹스를 넣어줌으로써 곡의 벌스와 흑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곡의 후렴구에도 다시 배치함으로써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하고, 마치 The Weeknd의 <Dawn FM> 속 Jim Carrey의 내레이션처럼 앨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도와주며 유기성을 한 층 더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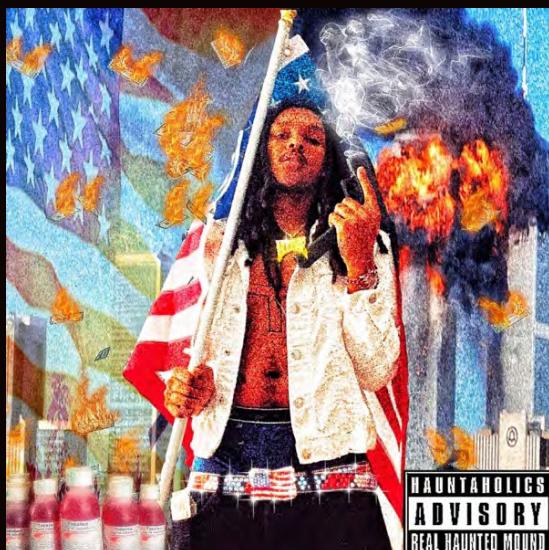




전체적인 앨범의 사운드를 살펴봤을 때, 해클은 치프 키프의 <Finally Rich>에 영감을 받은 수준을 넘어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치프 키프가 제일 잘 있다고 할 수 있는 턴업 요소들을 완벽히 전수받았다. 지금의 결과물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멜로디와 여러 장치들은 과감히 버리며 그 빈자리에 호러코어와 디제이 믹스, 지저분한 믹스를 삽입해 오롯이 자기 만의 것으로 재창작해냈다. 마치 일본의 의류 브랜드 Saint Michael처럼, 단순 영감에서 벗어나 완벽한 오마주와 복각을 행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앨범이 무작정 호평만을 받을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 앨범의 장점이 역으로 단점으로 작용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믹싱이다. 하드 트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겠지만, 지저분한 믹싱을 싫어하는 사람에겐 최악의 사운드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매한가지로 동일한 곡 구성을 공유하고 하이텐션이 쭉 이어지는 앨범 특성상 피로감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초기 시카고 드릴에 대한 수준급 이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특색 있고 트렌디하게 들릴 수 있는지 잘 아는 해클의 앨범이었다. 기조 있는 그만의 스타일 아래 하드 트랩을 더 굳건히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하드 트랩에 남다른 재능의 신예가 등장한 듯하다.



# Haunted Nati<sup>o</sup>n

- |                           |                               |
|---------------------------|-------------------------------|
| 1 Make You Dance          | 7 Winning Team                |
| 2 Lash Out (Ft. Semetary) | 8 Casket City (Ft. Turnabout) |
| 3 Tose                    | 9 Last Chapter                |
| 4 Get Sum                 | 10 Fun All Night              |
| 5 de_dust2                | 11 Left My Heart in Houston   |
| 6 No Reason               |                               |

# PINK FRIDAY

2

## GAG CITY DELUXE

HOT SongChico

# NICKI MINAJ

Iggy Azelea에서 Cardi B, Megan Thee Stalion로, 현재는 Ice Spice와 Sexyy Red까지, 또 때때로는 전설적인 여성 래퍼 Lil Kim과 Missy Elliott 마저도, 힙합 씬의 여성 래퍼들은 으레 그렇듯이 그녀와 손을 잡거나 비교대상이 된다.

니키 미나즈(Nicki Minaj)는 협업의 파트너와 비교의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는 오랜 기간 동안 여성 래퍼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동시에 힙합 아티스트를 넘어 한 명의 아이코닉한 팝스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꾸준히 내비치곤 했다.

이는 본 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1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회상하며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노래한 인트로 “Are You Gone Already”, 다른 여성 래퍼들과의 차이점을 논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강함을 내세운 “Barbie Dangerous”, 신이 내린 축복을 다룬 “Blessings”와 같은 몇몇 트랙을 제외한다면, 저지 클럽, 드릴, 아프로비츠, 댄스홀 등 트렌드를 좇기 위한 사운드를 담아내고 그곳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모시켰다.

Lil Uzi Vert, Drake, Future, Lil Wayne, J. Cole이라는 힙합 씬에서 차트 동원력 하면 빠지지 않는 래퍼들을 한데 모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프로비츠를 시도한 트랙에선 Skilli Beng과 Skeng을, 가스펠 랩에 가까운 “Blessings”에는 가스펠 보컬 Tasha Cobbs Leonard를 기용하는 등 피쳐링 멤버 또한 이 앨범을 풍성하게 채워낸 요소였으나 피쳐링으로 참여한 래퍼들의 퍼포먼스는 Future나 J. Cole을 제외한다면 평소에 비해 아쉬운 정도였다.

급하게 트렌드를 좇는 사운드의 구성은 이 앨범에서 단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운드들에서 니키 미나즈는 초반부에 여전히 녹슬지 않은 랩핑을 보여주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보컬로 중심을 옮기며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줌과 동시에 랩으로는 평이한 벌스들을 쌓아갔다. 또한, 많은 사운드를 담으려는 시도 때문에 트랙별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오히려 앨범단위의 감상이 깨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최근 힙합 씬을 넘어 팝 계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아 니키 미나즈에겐 첫 빌보드 핫 100 1위 곡 “Super Freaky Girl”을 선사한 히트 넘버의 샘플링을 본 작에서도 이어 나가며 Billie Eilish의 “When the party’s over”를 샘플링한 “Are You Gone Already”, Notorious BIG와 Bone Thugs-N-Harmony의 “Notorious Thugs”를 샘플링한 “Barbie Dangerous”, Lil Uzi Vert를 곡에 피쳐링으로 참여시키며 그의 히트곡 “Just Wanna Rock”을 샘플링한 “Everybody” 등 다양한 장르의 히트 넘버들을 샘플링해 이 앨범에 담아냈지만 이는 오히려 독창성의 부재와 게으름으로 인해 실패한 샘플링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작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여러 단점들을 가리기엔 충분하지 않았기에 훌륭한 앨범이라고 하기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니키 미나즈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체급에 비해 디스코그래피가 아쉬운 래퍼’라는 꼬리표. 앨범 단위의 완성도보다는 히트곡을 통한 대중적 인기라는 니키 미나즈의 야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이 야망은 본 작에서도 계속해서 발현되었다. 여러모로, 이처럼 니키 미나즈다운 앨범이 또 있을 수 없다.



# PINK FRIDAY

## 2

### GAG CITY DELUXE

- |  |   |
|--|---|
| <b>1</b> Are You Gone Already              | <b>13</b> Red Ruby Da Sleasee                         |
| <b>2</b> Barbie Dangerous                  | <b>14</b> Forward from Trini (Ft. Skeng & Skillibeng) |
| <b>3</b> FTCU                              | <b>15</b> Pink Friday Girls                           |
| <b>4</b> Beep Beep                         | <b>16</b> Super Freaky Girl                           |
| <b>5</b> Fallin 4 U                        | <b>17</b> Bahm Bahm                                   |
| <b>6</b> Let Me Calm Down (Ft. J. Cole)    | <b>18</b> My Life                                     |
| <b>7</b> RNB (Ft. Lil Wayne & Tate Kobang) | <b>19</b> Nicki Hendrix (Ft. Future) ❤                |
| <b>8</b> Pink Birthday                     | <b>20</b> Blessings (Ft. Tasha Cobbs Leonard)         |
| <b>9</b> Needle (Ft. Drake)                | <b>21</b> Last Time I Saw You                         |
| <b>10</b> Cowgirl (Ft. Lourdiz)            | <b>22</b> Just The Memories                           |
| <b>11</b> Everybody (Ft. Lil Uzi Vert)     | <b>23</b> Beep Beep (Remix) (Ft. 50 Cent)             |
| <b>12</b> Big Difference                   | <b>24</b> Love Me Enough (Ft. Keyshia Cole & Monica)  |



# CLASSIC REVIEW

LIQUID  
SWORDS

액션  
ryuzimoto

*Fantastic  
Damage*

액션  
온라인

because  
the  
internet

액션  
45

# CLASSIC REVIEW

# LIQUID SWORDS

EDITOR ryuzimoto

한 분야에서 가공할 만한 재능을 보여주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흔히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한다. 이 같은 명칭은 보통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중들이 부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 스스로를 "천재"라고 칭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즈자(GZA the Genius)이다. 그는 힙합 역사상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인 우탱 클랜(Wu-Tang Clan)의 멤버이다. 사실 우탱 클랜 소속 이전에도 걸출한 프로듀서인 이지 모 비(Easy Mo Bee)와 함께 손발을 맞춰 솔로 1집 <Words from the Genius>을 발매했으나, 지지부진한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힙합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인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에서 즈자는 제 몫, 아니 그 이상을 해내며 확실한 눈도장을 남기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솔로 2집 <Liquid Swords>로 이어지는 후속타로 90년대 Wu-Tang 왕조를 단단히 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물론 이는 타 멤버들의 강한 개성과 뛰어난 실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Only Built 4 Cuban Linx…>, <Ironman>,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등 수많은 작품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작품들 중에 역시나 군계일학은 <Liquid Swords>이다.



무협영화 “Legend of the Liquid Sword”에서 영향을 받은 타이틀, 그리고 “Shogun Assassin”에서 착안해 낸 내레이션은 앨범 곳곳에 배치되어 하드코어한 무림의 향기를 풍겨낸다. 또한 사무라이의 전장을 체스판에 비유해 내는데 이는 오묘한 동서양의 조화를 자아낸다. 얼핏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의 연장선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답습이 아닌 또 다른 미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Liquid Swords>에서는 르자(RZA)의 프로듀싱이 더 미니멀하고 차분해졌으나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는 더 짙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Willie Mitchell, Stevie Wonder, Three Dog Night 등 여러 아티스트의 고전 음악들을 매끄럽게 차용한 샘플링에 기인한다. 단순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사운드의 “Liquid Swords”, 신경질적인 신스가 줄곧 이어지는 “Gold”, 하드코어한 오리지널 블루트랙 “Swordsman”까지 마지막 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트랙이 RZA의 터치로 한데 묶여 뛰어난 유기성을 보여준다. 또한 “Trouble, Heartaches & Sadness” 샘플의 독특한 사용으로 훗날 침명크의 시초로 평가받는 “Shadowboxin’”까지 전적으로 압도적인 프로덕션을 구현해 냈다.

<Liquid Swords>에서 즈자는 절제되고 매끄러운 랩핑으로 앨범의 흐름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수많은 피쳐링진들 사이에서 한 치도 밀리지 않는다. 더불어 Wu-Tang Clan의 멤버 대부분이 참여하여 체스판 위의 사무라이로 변모해 그들의 실력을 앞다투어 뽐낸다. 특히 “Duel Of The Iron Mic”에서는 올 더티 바스타드(Ol' Dirty Bastard)의 진행 아래 즈자와 인스펙타 덱(Inspectah Deck), 마스터 킬라(Masta Killa)는 서로 랩 배틀을 진행하는데, 이는 가장 랩싯(Rap Shit)한 트랙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고스트페이스 킬라(Ghostface Killah), 래퀀(Raekwon), 유갓(U-God)이 참여한 “Investigative Reports”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역시 참여진이 가장 눈에띄는 트랙은 “B.I.B.L.E.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이다. 여기서 즈자는 모든 랩 파트를 마스터 킬라에게 양도하는데, 그는 이에 부흥이라도 하듯 이 성스러운 메시지를 담담하게 읊조린다. 이는 앨범의 어두운 분위기 속 유일하게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순간이다.

즈자와 르자, 이 두 장인이 힙합의 정수로 담금질한 섬뜩한 칼날의 <Liquid Swords>는 총과 화약, 각종 폭발물 등과 같이 현대적 무기가 난무하는 현 힙합 씬에서 바라보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은색 빛을 자랑하는 머큐리 소드(수은 칼)처럼 발매한 지 18년이 지난 현재도 그 빛을 아찔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우탱 왕조를 지탱하던 천재 즈자의 마스터피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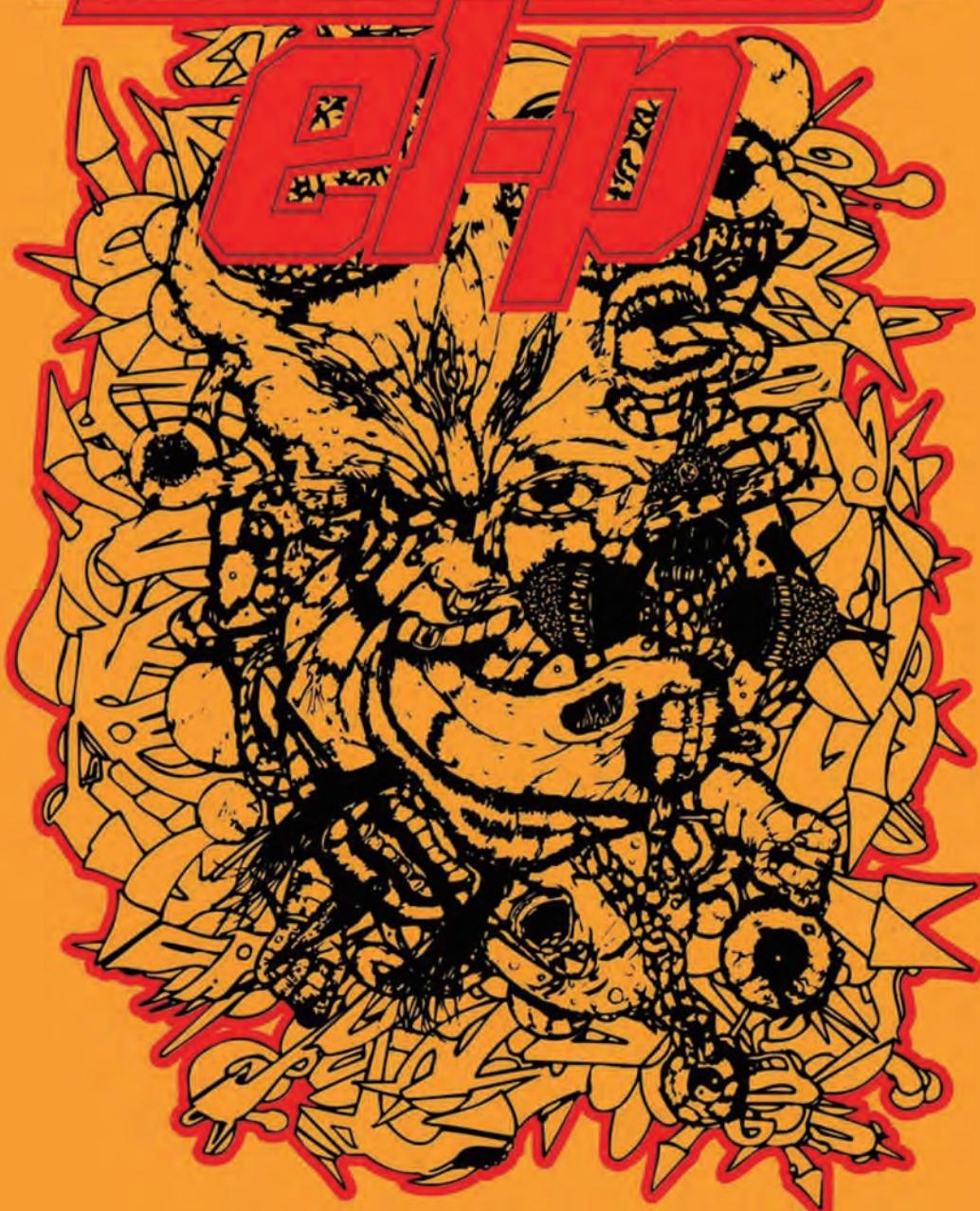
The image features the album cover for "Genius/GZA Liquid Swords" at the bottom left. The cover art is a dark, moody illustration of two hooded figures in a combat stance. The title "LIQUID SWORDS / GZA" is prominently displayed in white and red text above the tracklist. To the right of the cover, there are two stylized, pixelated illustrations of GZA in dynamic, forward-leaning poses, suggesting movement and combat.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gradient.

**LIQUID SWORDS / GZA**

1. Liquid Swords / 2. Duel of the Iron Mic (Ft. Inspectah Deck, Masta Killa & Ol' Dirty Bastard) / 3. Living In The World Today (Ft. Method Man & RZA) / 4. Gold (Ft. Method Man) / 5. Cold World (Ft. Inspectah Deck & LifeLines) / 6. Labels (Ft. RZA) / 7. 4th Chamber (Ft. Ghostface Killah, Killah Priest & RZA) / 8. Shadowboxin' (Ft. Method Man) / 9. Hell's Wind Staff / Killah Hills 10304 (Ft. RZA) / 10. Investigative Reports (Ft. Ghostface Killah, Raekwon & U-God) / 11. Swordsman / 12. I Gotcha Back / 13. B.I.B.L.E. (Basic Instructions Before Leaving Earth) by Killah Priest

1995.11.07

# *fantastic damage*



EDITOR 윤암

힙합 탄생 이래 최고라 불리던 두 랩스타의 이른 사망 후, 역설적이게도 힙합은 더욱 흥행하며 메인스트림 팝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을 단순히 '상업 힙합의 부흥기' 정도로 정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당대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Black Star를 위시한 Rawkus 레이블의 성장과 MF DOOM의 귀환, 그리고 Definitive Jux 레이블의 등장이 있다. 엘피(El-P)는 그 격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Rawkus를 통해 발표한 Company Flow 명의의 앨범 <Funcrusher Plus>는 현대 익스페리멘탈 힙합 사운드에 지대히 기여했으며, 앱스트랙 힙합과 익스페리멘탈 힙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클래식 중 하나이다. SF/디스토피아적인 사운드를 구현한 엘피의 프로듀싱은 음반에 대한 음악적 호평의 주된 이유였고, 더불어 그룹 해체 이후에도 엘피가 독자적으로 견고한 커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기도 했다. Definitive Jux를 통해 발표한 그의 솔로 데뷔작 <Fantastic Damage>는 Run The Jewels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느껴질 만큼 실험적인 음악 커리어의 걸출한 시작점에 해당한다.

방 안에서 오직 턴테이블과 샘플러, 신시사이저만을 사용해 수제 작업한 이 홈메이드 프로젝트는 믿을 수 없으리만치 훌륭하다. 단적으로, 그 규모와 거침없는 사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5년 전의 <Funcrusher Plus>와 비교해도 확연히 진일보했다. 엘피 본인이 밝혔다시피 Public Enemy를 참고한 고밀도의 힙합 프로덕션은 극히 과격하면서도 결코 정교함의 미덕을 잊지 않았다. 절찬히 샘플링된 드럼 브레이크를 기반으로 독특하게 가공된 샘플 조각들과 신스를 계산적으로 사용해 파괴적인 익스페리멘탈 힙합 사운드를 구현한 엘피의 역량은 지금까지도 단연 장르 최고봉의 경지임이 틀림없다.

허나 <Fantastic Damage>의 엘피가 호평받는 이유는 그가 걸출한 프로듀서뿐이 아닌, 걸출한 래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추상적이고 작가주의적인 문장을 집필하는 리릭시스트로서 엘피는 한껏 과포화된 장황함을 너무나 능숙하게 조련한다. 앱스트랙 힙합에 있어서 위인으로 추앙받는 만큼, 엘피는 수많은 레퍼런스를 활용해 도시 내 거리와 빈민가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며 사회비판의 고차원적 지평을 개척했다. 중후한 목소리로 전개하는 플로우 또한 그 자신의 과격한 비트를 능히 관통할 만큼의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Aesop Rock과 Vast Aire 등 긴밀한 협력자들의 활약 또한 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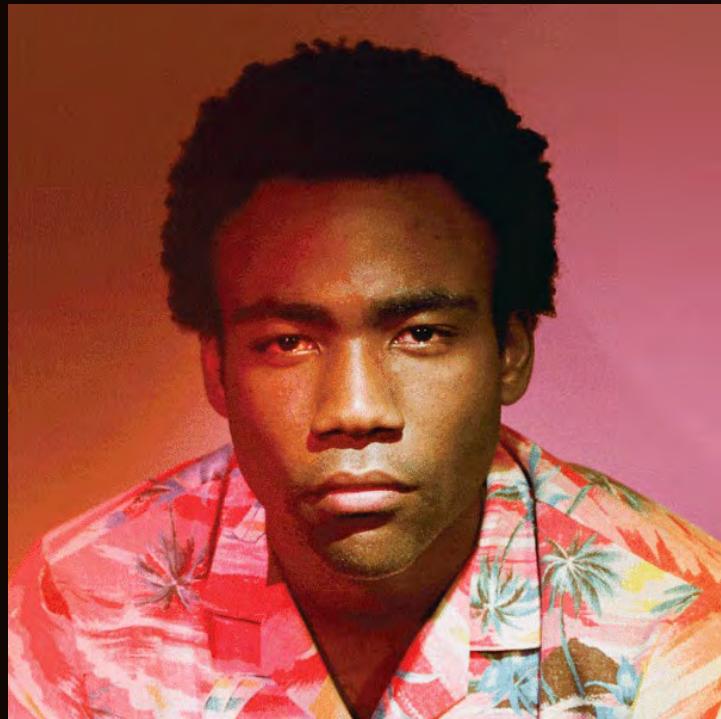
모두가 2002년을 <The Eminem Show>와 'Grindin'"의 해로 기억하고 있을 지라도 그 해가 동시에 익스페리멘탈 힙합에 있어선 축복과도 같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Dälek의 <From Filthy Tongue of Gods and Griots>, 그리고 엘피의 <Fantastic Damage>. 현재야 2000년대 초반의 작품들을 능가할 만큼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음반들이 수없이 등장한 치세이나, 난세를 손수 개척한 이들이 존재치 않았다면 현재 익스페리멘탈 힙합은 결코 이렇게나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구자의 업적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찬사받으리라.



## Fantastic Damage el-p

1. Fantastic Damage / 2. Squeegee Man Shooting / 3. Deep Space 9mm / 4. Tuned Mass Damper / 5. Dead Disnee / 6. Delorean (Ft. Aesop Rock) / 7. Truancy / 8. The Nang, the Front, the Bush, and the Shit / 9. Accidents Don't Happen (Ft. Cage & Camu Tao) / 10. Stepfather Factory / 11. T.O.J. / 12. Dr. Hellno And The Praying Mantus (Ft. Vast Aire) / 13. Lazerfaces' Warning / 14. Innocent Leader / 15. Constellation Funk (Ft. Uncommon Nasa) / 16. Blood (Ft. C-Rayz Walz & Mr. Lif)

2002.05.14



# because the internet

CHILDISH  
GAMBINO  
EDITOR 45

예술 분야에서의 성공이란 쉽지 않고, 설령 그 분야에 성공하더라도 더 이상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리뷰의 주인공인 차일디쉬 감비노(Childish Gambino)는 다르다. 그는 신입 시절 SNL 쇼의 작가를 넘어 코미디언이 됐으며, 코미디 연기 중 연기 실력을 인정받아 배우로써도 큰 성공을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천재 중의 천재이다. 그가 건드리는 예술 분야는 하나 같이 모두 호평과 찬사를 받았지만, 힙합에서만큼은 없던 욕을 만들어낼 정도로 혹평만 가득했다. 희극인 생활을 꽂피워준 뉴욕 예대에 입학하기 전 애틀랜타 학창 시절부터 '힙합'이란 단어는 그를 미친 듯이 가슴 뛰게 하는 열정과도 같았으며, 그의 궁극적인 꿈 중 하나였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게 해준 앨범이 본작 <Because The Internet>이다.

먼저 전작 <Camp>에 대해서 말해보자. 가사는 중구난방이고 사운드들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 괴상한 요소들을 한 음반에 무작정 섞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Because The Internet>만큼은 다르다. 감비노는 자신만의 색을 찾고 사이키델릭한 전자음악과 알앤비를 곁들인 힙합 앨범을 구상해 냈다. 전작과 비슷하게 중구난방한 감은 있지만, 자신의 본업 중 하나인 코미디언의 말장난을 랩에 도입하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뛰어난 라임 배치 실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감비노의 유쾌한 워드플레이는 깊게 숨겨놓은 의미들을 더욱 은닉한다. 이로써 재미있는 그의 입담과 워드플레이에는 1차 청취에는 단순 재미로서 다가오지만, 다회차 청취를 할 경우 수많은 문장 속 진의를 찾아가며 청자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든다. 또 본작에서 가상의 '소년'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한 후 내러티브를 전개한다. 위 방식은 앨범의 유기성과 몰입도도 높이는 반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을 자주 교차하며 평범한 이야기 아래에 숨겨진 진의를 아리따이 포장한다.

현실과 가상에 대한 교차는 서사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만 들다 보면 <Because The Internet>의 사운드 자체 또한 위 콘셉트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산한 전자음이 포인트인 인트로 "The Library"로 시작해 "Dial Up" 같이 현실로 통하는 듯한 스킷을 반복하여 현실과 가상 세계, 즉 인터넷을 여러 번 교차해 준다. 위 스킷들의 교차와 함께 전자음악을 사용한 힙합 사운드와 산뜻한 알앤비 트랙들 또한 교차되며 본작의 매력은 강화된다.

"Dial Up" 이후 부드러운 알앤비 힙합을 표방하고 탄산음료 같이 강렬한 일렉기타 사운드로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짜든 때를 벗겨내는 "The Worst Guy", 가상의 전자음악 힙합과 현실적인 분위기의 알앤비 힙합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명곡 "3005", Azealia Banks의 감미로운 보컬 하에 독특한 신스가 흘러내리는 "The Oldest Computer", 열아홉 트랙 중 가장 정통적인 힙합 트랙을 표방하는 "Sweatpants"까지 앨범의 즐길 요소는 넘쳐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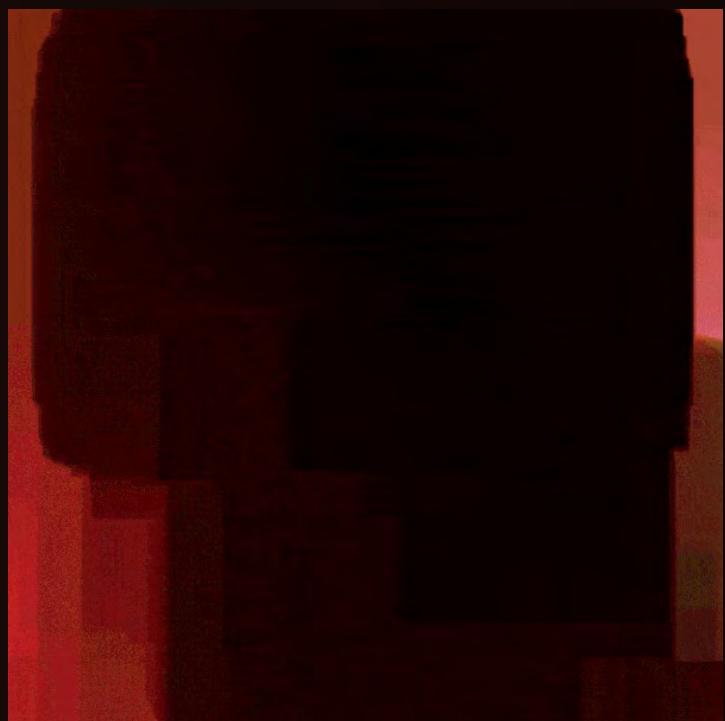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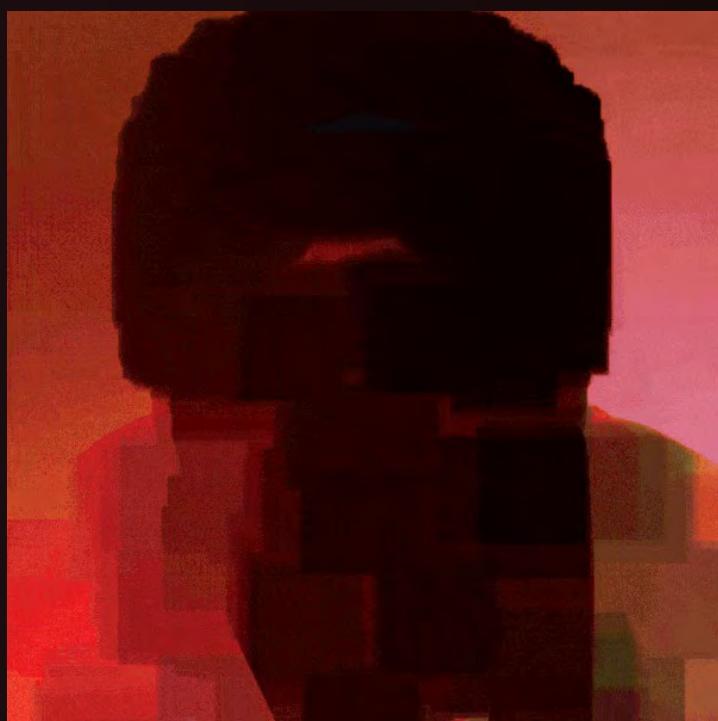
사실 이 앨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팝 랩'이다. 다른 이들도 다 알다시피 2010년대 이후 현대적인 팝랩의 시초는 Tyler, The Creator와 Drake, Mac Miller 등이 있지만, <Because The Internet> 또한 현대 팝 랩의 시초로 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Drake는 멜로디컬한 랩과 알앤비 보컬을 넘나들며 알앤비 힙합 장르의 팝 랩을 선보였고, Tyler, The Creator는 2000년대 퍼렐 사운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그 위에 세속적인 이야기 대신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고, Mac Miller는 힙합 외 팝과 인디 음악에 감명받아 다양한 요소를 힙합에 투영하려 했다. 차일디쉬 감비노 또한 진부한 마약과 갱스터 이야기 대신 자전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며 전자음악과 알앤비를 적절히 섞어 독특한 향수를 만들어냈다. 감비노 또한 얼터너티브의 한 축으로서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을 다 가져와 혼합한, 흔히 잡탕으로 불리는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있고, 작사 능력과 워드플레이의 능숙하나 코미디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앨범의 분위기가 깨진다는 평 또한 존재했다. 강약세가 배제되어 마치 드레이크를 연상시키는 불완전한 플로우 또한 혹평의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 이 앨범을 회고할 때 힙합 팬들의 평가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발매 당시엔 다수의 힙합 아티스트들을 카피한 듯한 흔한 스타일이자 잡탕에 가까운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감비노만이 낼 수 있는 감성을 짙게 품고 있는 앨범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팝 랩과 얼터너티브 힙합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가가 밝혀지는 작품들을 뽑아보자면, 아마 힙합 쓴 내에선 감비노의 앨범인 <Because The Internet>이 그 대표 예시가 아닐까 싶다.

## CLASSIC REVIEW

1. The Library (Intro) / 2. I. Crawl (Ft. kai & Mystikal) / 3. II. Worldstar / 4. Dial Up / 5. I. The Worst Guys (Ft. Chance the Rapper) / 6. II. Shadows / 7. III. Telegraph Ave. ("Oakland" by Lloyd) / 8. IV. Sweatpants / 9. V. 3005 / 10. Playing Around Before the Party Starts / 11. I. The Party / 12. II. No Exit / 13. Death By Numbers / 14. I. Flight of the Navigator / 15. II. Zealots of Stockholm [Free Information] / 16. III. Urn / 17. I. Pink Toes (Ft. Jhené Aiko) / 18. II. Earth: The Oldest Computer (The Last Night) (Ft. Azealia Banks) / 19. III. Life: The Biggest Troll [Andrew Auernheimer]

2013.12.10



# FEATURED

HERE  
COMES  
A NEW  
CHALLENGER!

23

에디터  
왕날

WORLD  
HAUS OF MATTERS  
гал드컵  
1ST

에디터  
공ZA, SongChico, 왕날, 은암, ryuzimoto





# 2023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에디터 앞날

2020년대의 힙합씬은 기존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과거부터 활동해 온 베테랑 래퍼들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던 인물들까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드문드문 대중에게 먹혀든 히트곡이나 앨범을 가져오는 신예들도 존재했으나, 기존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아티스트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진행하는 ‘2023 Here Comes a New Challenger!’는 2023년에 들어와서 놓치기 아쉽거나, 그 활약이 빛나는 힙합씬의 루키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소개에 앞서 아티스트 간의 우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며, 본고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음악성이나 잠재력이 돋보이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시작하는 것 이니, 만일 관심이 생긴다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Teezo Touchdown



티조 터치다운(Teezo Touchdown)의 매력적인 미성과 잠재력은 Tyler, The Creator, Drake, Travis Scott과 같은 메이저 아티스트의 앨범에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마 힙합, 락, 팝, 알앤비 등의 장르적 구애를 받지 않는 티조의 음악 스타일은 그들에게 록스타적 면모를 가진 독특한 아티스트로 비추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장 머리에 꽂은 6인치 가량의 수많은 못부터 시작해 검정 메쉬 상의, 가죽 바지의 패션은 과거 메탈 밴드의 향수를 자극하며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 역시도 범상치 않은 비주얼에 어울리는 데뷔 앨범 <How Do You Sleep At Night>을 발매해 다양한 장르를 한 군데에 얹어놓은 잠재력을 보여주니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grouptherapy.



그룹테라피(grouptherapy.)는 전직 배우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Jadagrace, SWIM과 TJOnline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혼성 삼인조 그룹이다. 그들의 음악은 힙합을 필두로 알앤비, 락, 일렉트로닉 등을 조합하며 여러 시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요한데, 그들의 정체성을 비슷한 결을 가진 힙합 그룹 오드 퓨처나 포스트 브록햄튼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딘가 아쉬울 것 같다. 당장 올해 처음으로 발매한 정규 스튜디오 앨범 <I Was Mature for My Age, but I Was Still a Child>은 분명 그들만의 색감을 꾸려냈기 때문이다. 음악적으로는 힙합하면 생각나는 폭력적인 구성이 아니며, 그룹 네임에 걸맞는 원숙하고도 자기성찰적 색채를 보여준다. 또한, 여성 보컬의 존재로 힙합과 알앤비의 경계를 쉽게 허물어, 색다른 얼터너티브 힙합의 색감을 제공하는 점이 주요하다. 결론은 근래 보기 힘든 얼터너티브 혼성힙합 그룹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일궈냈다는 것이다.



ICECOLD BISHOP



아이스콜드비숍(ICECOLDBISHOP)의 <GENERATIONAL CURSE>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데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앨범의 주 특징은 음산하게 짜놓은 웨스트코스트 힙합 비트 위로 하이톤의 서늘한 멜로디 랩이 자리 잡아 잔혹한 거리의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다. 어쩌면 Kendrick Lamar의 <good kid, m.A.A.d city>가 생각나기도 하나, 그보다도 잔혹하고 분노에 가득 찬 형태의 랩을 보여준다. 덕분에 그가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폭력적인 사회의 일면과 그로부터 시작된 트라우마는 특유의 리릭시즘을 통해 공명하며 서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다. 과거 자핑크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아이스콜드비숍 특유의 하이톤 랩은 우수한 데뷔 앨범을 일궈냈다. 훗날, 여타 아티스트들의 색감이 조금 더 빠진 뒤에 아이스콜드비숍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만족할 재회가 되리라 예상한다.



Luh Tyler



고작 2006년생, 러 타일러(Luh Tyler)의 데뷔는 성인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강렬하다. 당장의 취미로 시작한 음악이 Trippie Redd, Lil Uzi Vert와 같은 아티스트들에게 샤라웃 받을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흐느적거리는 랩 억양과 플로리다 트랩 사운드의 만남은 칠한 바이브를 형성하며 듣는 이에게 오묘한 중독성을 남긴다. 어린 나이 때 문인지는 몰라도, 자유로운 플로리다 분위기의 프로덕션과 친구와의 일상 어린 가사들은 자칫 지겨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이란 무기로써 독특한 색깔을 보여준다. 그가 제작한 첫 번째 믹스테잎 [My Vision]은 그 색감이 가득 담겨있으니 혹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아도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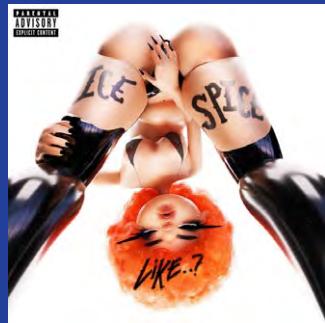
JELEELI?



비명을 형상화한 이름부터 시작해, 과도하게 펌핑된 우락부락한 몸을 자랑하는 래퍼 젤릴(JELEELI)은 확고한 컨셉을 바탕으로 한 음악 활동을 보여준다. 매 무대마다 백풀립을 시전하는가 하면, 관중 사이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이나 젤릴의 음악은 열정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된 피치업된 보이스로 가득 차있다. 올해 발매한 정규 <Real Raw!> 역시 특유의 컨셉을 바탕으로 재치있는 컨셉이 담긴 레이지 음악을 선보인다. 지루함을 덜어주는 에너제틱한 퍼포먼스, 그리고 과격한 프로덕션으로 이뤄낸 중독성은 듣는 이도 함께할 수 있을 만큼 흥을 고취시킬 뿐이다. 만약 다른 어두컴컴한 레이지 음악에서 벗어나, 밝고 기운찬 레이지 음악을 접하고 싶다면 젤릴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되리라 믿는다.



Ice Spice



아이스 스파이스(Ice Spice)는 올해의 루키들 중에서도 눈부신 차트 성적을 기록했다. “Munch”的 차트 진입, 드레이크의 샤라웃을 기점으로 기존 OG 래퍼들의 지지, 발매한 EP <Like...?>의 성공까지 이어진 그녀의 서사는 마냥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나 만화 같은 브롱스 드릴 비트 위에서 성공에 대한 스웨그, 넘치는 자신감을 펼치는 그녀의 랩이 이미 차트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그녀가 진행한 여성 가수들과 진행한 활발한 협업 역시 성공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솟풀에서 컬처적인 인기를 누린 “Boy’s Liar Pt.2”이 대표적이다. 결국 그녀가 이뤄낸 연달은 성공은 단순하게 명성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나름의 음악성과 독특한 캐릭터성으로 증명한 것이니, 2023년을 대표하는 신예임은 분명하지 않을까? Graah!



Sexyy Red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노골적인 컨셉과 가사들은 대중에게 그녀를 각인시키는 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아이스 스파이스보다 훨씬 매운맛으로 등장한 이 여성 래퍼의 이름은 바로 섹시 레드(Sexyy Red)이다. 섹시 레드의 가장 큰 음악적 특징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솔직함이다. 일례로 히트곡인 “Pound Town”的 거침없는 가사는 Drake와 Travis Scott, Summer Walker와 같은 뮤지션들의 러브콜을 불러냈고, 그들의 무대나 피처링에 등장하며 더욱 확고한 컨셉을 밀고 갈 원동력을 얻어냈다. 어쩌면 그녀의 저속한 가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녀는 당당하다고 말할 뿐이다. “나는 항상 나 자신으로 솔직하고, 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



Ovrkast.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오버캐스트(Ovrkast.)의 본격적인 등장은 Earl Sweatshirt의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부터였다. 기존 Madlib를 위시한 블루스과 웨이비한 샘플 활용의 프로듀싱은 여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러브콜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오버캐스트의 활동은 프로듀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래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전작 믹스테잎인 <Try Again>이 그러했고, 올해 발매한 EP <Reset!>이 같은 선상에서의 시도이자 성취였다. 특히나 올해 발매한 EP는 독특한 샘플 루핑과 자신감 있는 랩을 보여준 좋은 언더그라운드 래퍼의 시발점이자 발전이었다. 더 군다나 올해 드레이크의 <Scary Hours 3>에 참여하면서부터 프로듀서로서의 두각까지 확실히 나타내었으니, 훗날 힙합 씬의 플레이어로서 기대할 요소는 충분해 보인다.



That Mexican OT



댓 멕시칸 OT(That Mexican OT, Outta Texas)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텍사스 출신의 멕시코계 미국인 래퍼다. 가정과 출신을 비롯한 주변 환경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고향인 텍사스의 전통과 라틴 특유의 발음을 융합한 랩을 지향하게 되었다. 앨범 <Lonestar Lunchador>의 싱글 커인 “Johnny Dang”的 성공적인 차트인이 바로 그 예이다. 그의 성공 배경에는 남부 힙합과 슬랩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프로덕션의 풍미로 끌어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멕시코 민속 음악 샘플과 808 사운드의 남부 힙합의 결합이 유효하게 먹혀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멕시칸 OT만의 새로운 스타일이며, 새로운 스타일을 견고하게 해준 것은 그가 장착한 탄탄하고도 다채롭게 배열한 라임의 랩이였다. 결론적으로 멕시칸 OT의 등장은 멕시코와 텍사스의 조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낸 유쾌한 프로레슬러 악당이 힙합 씬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Veeze



래퍼 비즈(Veeze)는 디트로이트 트랩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Ganger>를 통해 나름의 증명까지 증명까지 해냈다. <Ganger>의 주 특징은 디트로이트 트랩 특유의 드럼과 신스 사운드 그리고 그 위에 얹는 비지의 흐느적거리는 랩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둘의 조화 위에 정신없는 샘플링의 활용 역시 프로덕션의 매력을 한껏 올려준다. 그 배경에는 비즈가 랩을 대하는 태도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느릿느릿 한 목소리 및 말투를 자랑하는 태도, 의도적으로 랩을 끌고 말장난을 하는 등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의 음악은 서사적이거나 주된 개념이라곤 찾기 힘드나, 오히려 일종의 코미디 작품과도 같은 편치라인들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매력이라면 매력일 것이다. 이상하게 청자를 빨아들이는 보컬 기법과 의식의 흐름과도 같은 단어 선택은 비즈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겠으니, 4년 만의 앨범으로 등장한 비즈는 분명 올해의 힙합 씬 안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이다.



DC The Don



고작 나이 23세의 디시 더 돈(DC The Don)은 위스콘신 밀워키 출신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을 선보인다. 당장 2023년에 발매한 <Funeral>은 신스 팝 위에 올려놓은 랩부터 어쿠스틱한 질감의 트랙까지, 다채로운 질감의 앨범을 완성하였다. 그의 전체 음악 커리어를 보자면 강렬한 트랩과 같은 비트를 선택하면서도 서정적인 이모 랩 스타일을 결합한 것이 주요하다. 그러나, 이를 여타 이모 래퍼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선이라면 소개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른 래퍼들과의 차별점이 존재하는데, 직접 조율한 신나는 애니메이션틱한 프로듀싱부터, 드릴에 팝적인 색깔을 입히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어떤 장르를 택하더라도 본인의 색감으로 칠한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일테니, 더욱 다듬어지는 뒷날을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Osamason



다크 플러그, 레이지, 트랩, 복잡한 일렉트로닉 음악의 미상까지 다룬 래퍼가 존재한다면 믿으시겠나? 올해 오사마손(Osamason)의 작업량만 보아도 장르를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 새로이 확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다. 데뷔 앨범 <Osama Season>의 다크 플러그, <Flex Musix>의 하드코어 레이지 및 다양한 트랩의 확장까지, 올해 연달아 내놓은 작품에는 신선함과 무언의 시도가 존재했다. 물론 장르가 장르인 만큼이나 어둡고 폭력적이나, 그 뒤편에는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존재하는 듯하다. 오피 워 사단의 켄 카슨(Ken Carson)과 목소리나 음악적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인식을 받기도 하나, 오사마손의 음악의 레이지 사운드는 동떨어져 있으니, 그의 실험성이 빛나는 것이다. 혹은, 켄 카슨의 레이지보다 다채로울지도 모르겠다. 만약 일반적인 레이지 사운드보다는 더욱 다채로운 걸을 추구한다면 그의 음악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 제 1회 HOM 매거진

### 갈드컵



칸예 웨스트의 1집  
<The College Dropout>과  
2집 <Late Registration>,  
두 앨범 중 어느 작품이 더 뛰어난가

사회

공ZA

참여자

<The College Dropout> 팀

앞날, SongChico

<Late Registration> 팀

온암, ryuzimoto

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w/HOM에서 2024년 신년 호를 맞이하여 특집으로 진행하는 토론입니다.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1집인 <The College Dropout>과 2집 <Late Registration> 중 과연 어 떤 작품이 더 뛰어난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각 앨범마다 두 분의 에디터 패널을 모셨으며, 토론은 공ZA님의 진행 하에 w/HOM의 에디터 네 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앨범이 발매되기 전 인상은 어떠하였는가?
- ▶ 각 앨범에 담긴 칸예 웨스트의 랩은 어떠하였는가?
- ▶ 앨범의 프로듀싱/사운드는 어떠하였는가?
- ▶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 미학적 측면은 어떠한가?
- ▶ 각 앨범이 후대에 끼친 영향력은 어떠한가?

## INTRO 자기 소개

**공ZA (이하 공)** 안녕하세요, HOM 매거진 제 1회 갈드컵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전 사회를 맡은 공ZA입니다. 23년의 문을 서서히 닫고, 24년의 포문을 여는 오늘의 뜨거운 주제는 바로 힙합엘리의 (전) 갤주 "Kanye West의 1집과 2집, 두 앨범 중 어느 작품이 더 뛰어난가"입니다. 토론을 위해 w/HOM의 에디터 4분을 모셨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팀 멤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1집 팀 먼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ngChico (이하 송)**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악동', '칩 맹크 소울의 아버지', '힙합이 낳은 최고 아티스트' 칸예 웨스트 1집 VS 2집 토론에 참여하게 된 인스타그램 계정 @songchico를 운영하며 w/HOM의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SongChico입니다.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건전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날 (이하 앞)** 안녕하세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 대학 중퇴를 하고 싶은 사람 1, 앞날이라고 합니다.

**공** 반갑습니다. 2집 팀도 이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온암 (이하 온)** 안녕하십니까. 저 무지몽매한 중퇴의 괴뢰들을 격퇴하고 올드 칸예 웨스트 최고작인 <Late Registration>의 우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광란의 토론장에 등록하게 된 온암이옵니다.

**ryuzimoto (이하 류)** 안녕하세요. w/HOM의 필진 ryuzimoto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상대측을 존중,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라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 CHAPTER 1 인상적 측면

**공** 각 참여진들의 자기소개를 마쳤고, 곧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예 웨스트의 데뷔 앨범과 2집은 각각 어떠한 인상을 남겼었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집 팀 먼저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사실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가 발표되기 전까지 흔히 '힙합 예술의 한계'로 평가받는 작품은 2집이었죠.

굳이 힙합 앨범이 아니더라도 고전 흑인 음악과 오케스트라를 유연하고 웅장하게 녹여내어 힙합 얼터너티브의 극을 보여준 <Late Registration>은 꽤나 주관적인 기준이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감정적 파고를 남긴 앨범 중 하나입니다. 일단 칸예 웨스트, 존 브라이언 이 두 거장이 만든 힙합 오케스트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압도감이 느껴지는 앨범이죠. 심지어 잔잔함과 웅장함, 감동을 오가는 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1집이 줄 수 있는 그것의 수치를 아득히 능가했다고 봅니다.

**앞** 단순히 1집 <The College Dropout>보다 <Late Registration>는 2집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기념비적인 느낌은 덜 해 보일지 모르지만, 프로덕션 측면으로 보나 메시지적인 측면으로 보나 더 완숙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ate Registration>이 진정한 올드 칸예 웨스트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곰돌이 칸예 웨스트 재킷과 함



---

께 'Wake Up Mr. West!'를 외치며 포문을 여는 그 순간은 아직도 저에게 산뜻한 행복감으로 남아있습니다.

▶ 5집 이전에 힙합의 장르의 무한한 가능성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가능하게 해준 작품은 바로 2집이었다는 말씀과 함께, 데뷔 앨범보다 더욱 나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집 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 <The College Dropout>은 칸예 웨스트의 프로듀서 시절부터 친구, 가족, 지인, 회사와의 관계가 모두 담긴 앨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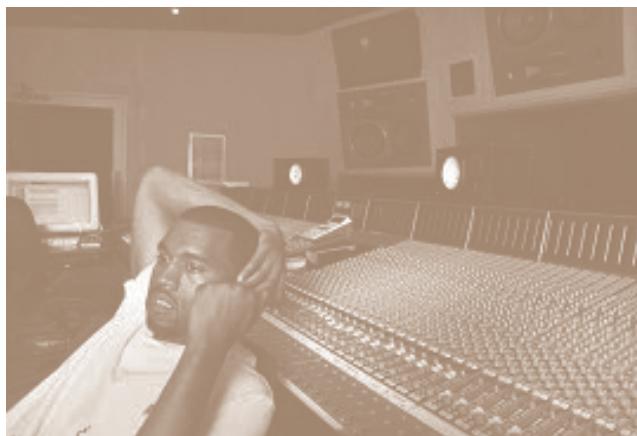
침명크 소울이라는 이름 아래 <The College Dropout>은 그 당시 힙합 주류 안에서도 샘플링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배열한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전에 이런 방식이 없던 것은 아니나 완성형에 가깝게 만들어진 앨범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라카펠라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도 래퍼로서의 꿈을 키워오던 칸예 웨스트의 애환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본인이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세상에 널리 전파시킨 침명크 소울 프로덕션의 정점을 찍은 칸예 웨스트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첫 앨범이지 않을까.

또한, 중산층 프로듀서 출신이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힙합 씬에서는 불리한 출신에서 빛어낸 <The College Dropout>이야말로 올드 칸예웨스트의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앞날님께서는 1집이 침명크 소울 작법의 완성본임을, SongChico님께서는 불리한 출신임에도 멋들어진 프로듀싱이 인상적인 앨범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혹시 각 패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실 게 있으신지요?

▶ 침명크 소울 작법의 완성은 <The Blueprint>라고 봅니다. 오히려 <The College Dropout>의 의의는 칸예 웨스트 본인에게 집중했을 때 더 지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칸예 웨스트만의 침명크를 담아냈다는 점에선 1집이 하나의 완성형이라고 평가받을 순 있으나, 칸예 웨스트 이전에도 분명히 다수 시도되었던 하나의 작법 하에서 게임 체인저와 같았던 <The Blueprint>의 아성을 초월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오히려 제이지의 명반 The Blueprint가 침명크 소울 작법의 완성본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 1집 팀에서도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실까요?

▶ <The Blueprint>에서 보여준 프로덕션이 당시에 센세이셔널하고 판을 바꿀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시기상 제이지(Jay-Z)의 앨범이 더 먼저였고, 제이지라는 거물이 발매한 앨범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더욱 부각됩니다. 하지만 온암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다르게 오히려 침명크 소울 작법에서는 <The College Dropout>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The Blueprint>는 제이지의 앨범으로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며, 침명크 소울 작법의 완성본에 더 가까울 수 있단 의견은 동의하나, 침명크 소울 '앨범'으로서는 칸예 웨스트의 작품이 더욱 완성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이지가 그냥 랩을 잘했기에 <The College Dropout>가 뒤쳐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나 제이지의 앨범에 초점을 맞출 시 논제를 다소 벗어날 수 있기에 더는 반박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CHAPTER 2

### 랩 측면

▶ 두 분 모두 온암님의 의견을 각자의 생각을 보태어 말씀해주세요. 인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의견을 들었기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각 앨범 속에서 칸예 웨스트의 랩은 과연 어떤 하였는가?'입니다. 이번에는 1집 팀부터 <The College Drop-out> 속 랩의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랩은 우선으로 당대 힙합 씬의 주류를 벗어났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으로 시작하여 친구와 가족, 회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당대의 폭력성 짙은 환경의 랩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이 주요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런 내용의 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산층의 래퍼,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랩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에게 준 앨범이기도 하므로 더욱 각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 올드 칸예 웨스트의 앨범들과 래퍼로서의 칸예 웨스트의 단점을 논할 때 "랩을 그리 잘하지 않는다"라는 평이 오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Jesus Walk"나 "The New Workout Plan"등

홀로 채워낸 트랙을 본다면, 당시 주류에 자리잡고 있던 갱스터 랩과 같은 길거리, 폭력이 생각나는 랩들을 벗어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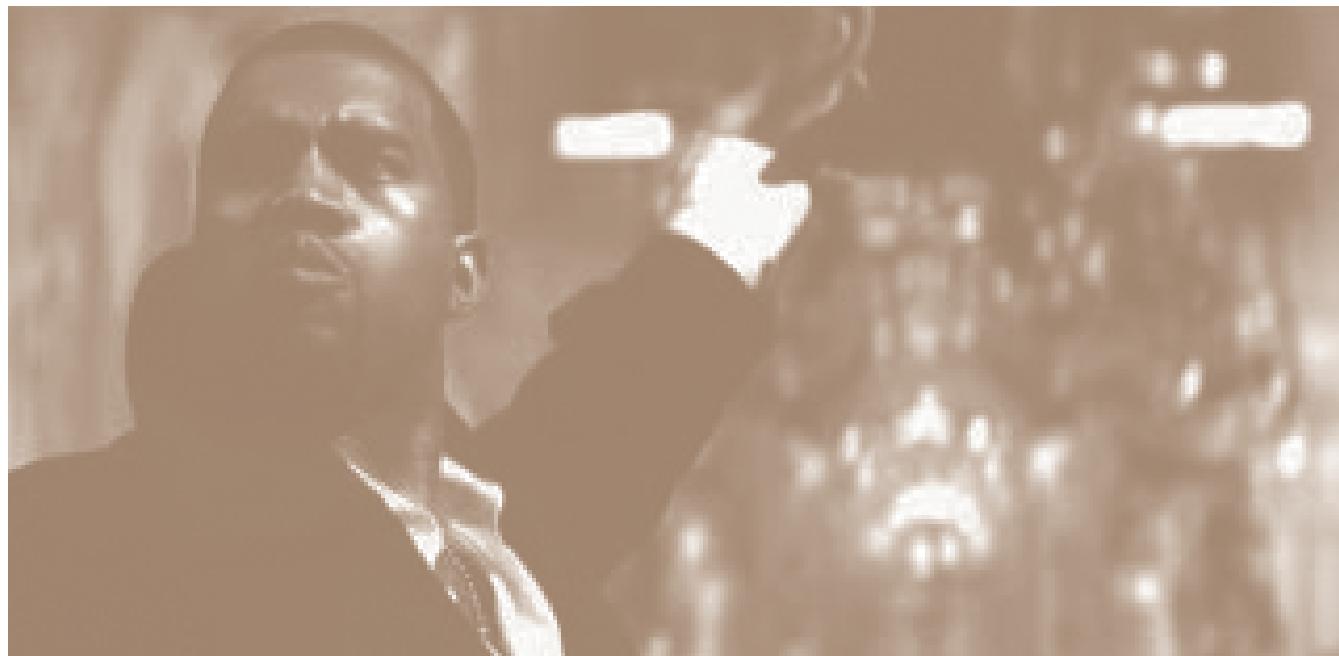
칸예 웨스트는 이미 혼자서도 긴 곡을 재밌게 채워낼 만큼 비트에 어울리는 랩을 뺄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이미 능력치가 높은 래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앞날님과 SongChico님 모두 칸예 웨스트가 당시 힙합 씬의 흐름에서 벗어나면서도, 좀 더 본인의 환경에 집중한 랩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추가로 독특한 프로덕션 위에 얼마나 어울리게 뺄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네요. 칸예 웨스트의 랩에 대한 2집 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 칸예 웨스트의 랩 퍼포먼스를 제한다면 이 앨범을 소울 앨범의 일종이라 분류해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본작의 정체성을 힙합 음반으로서 정의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칸예 웨스트의 랩이라는 뜻입니다.

▶ 턱 부상이란 핸디캡을 제하고도, 2집의 칸예 웨스트는 1집보다 확실히 물오른 래핑을 선보였습니다.

칸예 웨스트가 랩을 가장 잘한 곡을 꼽을 때 "Diamonds From Sierra Leone", "Gone" 등이 꼽히는 것만 봐도 이 당시의 칸예 웨스트가 스킬과 리리시즘 양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엿볼 수 있죠.



1집 플로우의 일직선적 경향을 극복하고 노련미를 더해 1시간 10분 가량의 볼륨을 이끄는 MC로서의 역량이 돋보입니다.

가사의 주제는 1집의 컬리지 랩 류 컨셔스 래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표현 방식이 더욱 원숙해졌습니다. "Gold Digger"가 물질만능주의로 뒤틀린 이성 관계를 풍자하는 곡이란 사실은 이미 유명하죠.

특히 사회 문제점을 주로 다루는 중반부에서 칸예 웨스트는 비판, 스토리텔링, 자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Hey Mama"만큼이나 <Late Registration>의 리리시즘에 있어 케이크 위 딸기 같은 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의 스승이 된 어머니께 존경을 표하는 내용은 '어머니'라는 존재를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치 칸예 웨스트가 2000년대 버전 2Pac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군요.

▣ 온암님께서는 칸예의 랩에서 기술적인 부분, 리리시즘 이 1집에 비해 발전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예로 "Hey Mama"의 감동에 대해 언급해주셨네요.

<The College Dropout> 팀은 어떠신가요? 1집에 비해 2집이 보다 완숙해졌다는 온암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시나요? 혹은 반박할 거리가 있으신가요?

▣ <The College Dropout>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안고 제작된 작품이라 랩 스킬이나 플로우를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 <Late Registration>의 랩은 칸예 웨스트의 랩보다 참여진 나스나 제이지의 랩이 주목받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씬의 아래글러와 같은 존재임을 참작해도 앨범 구성적인 면에서 다른 피쳐링으로 인해 감상을 저해하거나, 필요성에 의문이 느껴지는 피쳐링 랩이 존재하기도 해서 오히려 아쉬운 앨범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칸예 웨스트가 랩으로 뒤처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쉽다는 감정이 먼저 듭니다.

▣ SongChico님은 온암님이 짚어주신 교통사고로 인한 턱 부상이라는 핸디캡을 짚어주셨고, 앞날님께서는 앨범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오히려 앨범의 주인보다 빛 발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2집 팀은 어떠신가요? 1집에 비해 완숙해졌지만 피쳐링으로 참여한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해 칸예의 랩이 빛 발하지 못했을까요?

▣ 사실 칸예 웨스트가 'College Rap'으로 통칭하는 중산층 래퍼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존재는 아니죠. 당장 ATCQ와 Common이 있는데요.

하지만 칸예 웨스트가 그 방면에서 대중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면이라면 동의합니다.

또한, 앞날님께서 짚어주신 '씬 스타일링' 면에서 1집도 그런 순간이 꽤 만만치 않게 많았다고 봅니다.

"Never Let Me Down"의 제이지, "Get Em High"의 Common, "Slow Jamz"의 Twista, "Two Words"의 Mos Def 등이죠.

오히려 "Diamonds From Sierra Leone (Remix)"의 제이지가 워낙 독보적이었을 뿐이지, 앨범 전체적으로는 2집에서 칸예 웨스트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1집은 그런 면이 가사나 서사적인 면에서 충당되기에 그렇게 느끼기 힘들었는데 상당히 다르네요. "Slow Jamz"는 인정하나 다른 곡까지는 그렇게 느끼기 힘듭니다.

2집의 아쉬운 점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칸예 웨스트보다 뒤쳐지는 랩 피쳐링이 있어서 아쉽다는 이야깁니다. 대표적으로 "My Way Home"이 있네요.

▣ "My Way Home"이 본래 <Be> 수록곡이며, 일종의 인터루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변호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CHAPTER 3

### 프로듀싱 / 사운드 측면

▶ 질적으로 뒤처지는 예시도 짚어주셨고, 온암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덧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나왔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예 웨스트 하면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프로듀싱 및 사운드 측면인데요. 2집 팀부터 <Late Registration>의 사운드와 프로덕션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흔히 2집이 1집의 개량형이라는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te Registration>은 <The College Dropout>의 작법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트랙에서도 침명크 소울을 쓰지 않은 채로 철저히 샘플 원곡의 감흥을 백분 살리며 우아미가 돋보이는 프로덕션을 구현한 칸예 웨스트는 두 번째 앨범에서부터 벌써 혁신을 주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The College Dropout>의 작법을 이어받은 앨범은 같은 시기의 Common의 <Be>에 가깝죠.

실제로 칸예 웨스트는 <Be>와 <Late Registration>을 동시 작업하며 Common의 앨범에 자신의 앨범을 비교하며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집과 달리 2집은 존 브라이언이라는 걸출한 협력자가 함께 했죠.

힙합 특유의 미니멀한 사운드를 그의 오케스트라로 극복하며 구축한 <Late Registration>의 프로덕션은 그야말로 힙합 맥시멀리즘 역사의 큰 방점이나 다름없습니다.

"Diamonds From Sierra Leone"과 "We Major"의 프로덕션은 너무나도 장엄한 나머지 눈물이 나올 지경이고, "Gone"의 유연한 변주는 곡 하나에서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미니멀한 지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Heard 'Em Say"와 "Addiction", "Hey Mama"는 최소한의 샘플만을 사용해 칠한 톤을 백분 살린 곡들입니다.

또한 1집에서 칸예 웨스트가 드럼을 직접 찍는 일이 많았다면, 2집은 샘플링을 통해 드럼 브레이크를 삽입해 향수를 자극하고 빈티지한 질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힙합의 근본이나 다름없는 드럼에서부터 앨범의 테마가 완

전히 이해되고 합치되는 지점이죠.

여타 평론지와 비교하면 전위성을 유독 중시하는 피치포크에서 왜 <Late Registration>에 9.5점이라는, 전작을 아득히 능가하는 점수를 주었을까요?

이 이유만 생각해봐도 단순히 2집이 1집보다 진보된 버전의 음반이라는 사실은 깨닫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해주신 존 브라이언이라는 서포터의 존재와, 침명크 소울이라는 그의 시그니처를 뛰어넘는 사운드의 혁신을 2집에서 보여주었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명 평론 사이트 중 하나 피치포크의 평점을 제시해주셨고, 드럼 프로덕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1집 팀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볼까요?

▶ 침명크 소울이란 작법 자체로도 인상적이기도 하나, 그 작법이 앨범의 주제 의식을 강화하는데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Through The Wire"가 대표적이죠.

특히나 데뷔 앨범이라는 특징과 몇 곡 제외한 전곡 셀프 프로듀싱의 장점이 극대화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2집보다는 1집에서 올드 칸예 웨스트하면 떠오르는 스타일이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집이 가공한 프로덕션은 칸예 웨스트의 삶이 합쳐지면서 2집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흐름 있는 프로덕션이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1집과 2집의 사운드가 전혀 다르다는 말도 공감하나, 혁신적이라는 점이 우월하다는 설명으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피치포크의 점수는 하나의 평론지 점수로 공신력은 있으나 대중 혹은 다른 평론지의 의견을 무시하므로 옳지 못한 근거 같습니다.

▶ <Late Registration>은 힙합의 바운더리를 넓혔다는 평이 지대적이지만, 역으로 본다면 <The College Dropout>이 힙합 프로덕션에 가깝고, 힙합 앨범으로서는 더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치포크의 점수로만 두고 본다면 13점 차이가 나지만, 표본이 40,000개 이상 존재하는 유저 참여 평론에서는 <The



*<College Dropout>*의 손을 들어줬으니 평론이 절대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 앞날님께서는 앨범의 주제 의식을 더욱 살려주는 칩명크 소울의 장점과 더불어 혁신이 항상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피치포크는 수많은 평론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SongChico님은 2집이 힙합의 경계를 넓힌 건 맞지만, 힙합 장르만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적합한 앨범은 1집이라고 이야기해주셨고, 유저 참여 평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네요. 2집 팀은 1집 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SongChico님께서 *<The College Dropout>*이 힙합 프로덕션에 가깝고, 힙합 앨범으로서는 더 훌륭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SongChico님의 발언을 존중하여 혹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음악 자체의 큰 틀 하에 세부 장르인 힙합의 범주 안에서만입니다. 작품을 평가할 때 한 장르에만 매몰되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의 음악으로 바라보았을 때 *<Late Registration>*는 힙합의 바운더리를 넓혔고, 다시 한 번 더 힙합이라는 장르가 타 장르들과 함께 적절하게 크로스오버 될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The College Dropout>*보다 더 뚜렷하게요. 그렇기에 *<Late Registration>*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닐까요?

▶ 혁신적 = 우월함이라는 주장을 펼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혁신적이라고 우월하다면 *<808s & Heartbreak>*가 *<The College Dropout>*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응당 하겠죠.

*<Late Registration>*이 우월한 이유는 힙합에 실물 오케스트라를 적극 동원하며 감정적 여파를 극대화하고 앨범 하나의 서사시적 속성을 강화시켰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곡들만 놓고 봐도 칸예 웨스트의 커리어에 있어 최고의 곡으로 평가받을 만한 명곡들이 수두룩하고요.

피치포크 건은 일종의 비유를 통한 예시였습니다.

굳이 9.5라는 점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Late Registration>*이 *<The College Dropout>*보다 많은 방면에서 앞서 갔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 평론을 강조한 것이 아닌 2집의 프로덕션이 1집보다 뛰어난 근거는 이미 제시했다고 이야기해주셨고, 혁신을 차차 하더라도 우월한 이유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비롯한 사운드에서 온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1집 팀은 2집 팀의 반박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오케스트라를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은 분명히 좋은 장치였으나, Guru의 *<Jazzmatzz>* 시리즈나 Cypress Hill이 "Insane in the Brain"의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을 심슨 시리즈에서 보여주며 큰 화제를 끌었던 경우도 존재하니 무조건적으로 혁신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잘 동원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저도 SongChico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칸예 웨스트의 커리어에 있어 최고의 곡으로 평가받는 곡들은 *<The College Dropout>*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CHAPTER 4

### 미학적 측면

▣ 사운드 / 프로덕션 면에서도 각 팀의 다양한 의견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1집에서는 칩멍크 소울이라는 작법, 힙합 장르에 초점을 맞춘 뛰어난 사운드라고 정리해주셨고, 2집은 힙합과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조화 및 맥시멀리즘 등의 혁신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두 앨범의 미학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1집 팀부터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학적으로 앨범 내의 주제가 얼마나 명확한가는 1집이 근소하게 2집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칸예 웨스트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보다 어떤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를 따져봤을 때, 1집 자체로 올드 칸예 웨스트를 형상화하기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래퍼보다 나아가 MC로서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앨범은 1집 이니까요.

▣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의 트랙 배치 만큼 큰 예술적 가치를 보여준 것이 <The College Dropout>의 후반부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합을 보여준 래퍼들의 "Two Words"부터 칩멍크 소울의 대표곡 "Through the Wire", 가장 큰 감동을 선사하는 "Family Business"와 대곡 "Last Call 까지", 이 곡들은 분명히 칸예 웨스트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 앞날님은 칸예 웨스트가 얼마나 앨범에서 주제를 잘 표현했는지, SongChico님은 1집의 후반부 구성이 칸예 웨스트의 커리어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고 언급해주시면서 미학적 측면의 근거를 각각 제시해주셨습니다.

2집 팀의 미학적 측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요?

▣ 앞날님의 말씀대로 주제의 명확성만을 보자면 1집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학적으로 판단할 때 왜 명확성이 기준이 되는지 먼저 저는 의문이 드네요.

거기에 1집이 2집보다 칸예의 삶이 더 잘 드러났다고 하셨습니다만, 2집에서는 병상에 계시는 할머니를 기도하는 "Ros'es"를 더불어 "Hey Mama"에서는 어머니인 돈다 웨스트를 위해 노래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보다 누군가를 표현할 때 가장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솔직한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이질감 없이 매끄럽게 표현하는 게 더 미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말할 때는 더더욱이요.

2집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뒤편의 참혹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언급하는 "Diamonds from Sierra Leone"와 돈만을 좋아가는 젊은 여성들을 경고하는 "Gold Digger"가 대표적이죠.

▣ 빈티지와 혁신의 합치, 고전 흑인 음악과 오케스트라의 협력. 겪어본 적도 없는 노스텔지어의 파도 속에서 칸예의 식안은 한 줄기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중산층, 프로듀서 출신의 래퍼라는 독특한 위치에서 시작해 본격적으로 'Me Against The World'를 외치기 시작하며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부각한 칸예 웨스트의 목소리는 그 우아하고 관능적인 음악과 어우러지며 지대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힙합 외 어느 장르를 둘러봐도 복제품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오직 힙합이기에 가능한.

<Late Registration>은 분명 칸예 웨스트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며, 동시에 2000년대 초반 범람하는 힙합 지성들의 명작 퍼레이드에서 단연 최고봉에 있는 음반입니다.



▶ ryuzimoto님은 앞날 님의 의견에 반박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주셨고, 온암님께서는 앞선 주제들의 통합적인 부분들을 미학적 측면의 근거로 제시해주셨네요.

혹시 각기 말씀해주시신 미학적 측면에 대해 반박해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 사실 칸예 웨스트 자체가 아이코닉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딱히 반박하고 싶지는 않네요.

▶ 저도 2집의 미학적인 측면은 동의합니다.

▶ 저도 반박할 거리는 없지만 2집에도 1집 후반부와 비등한 라인이 있습니다. 스킷 때문에 끊기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스킷들도 앨범 서사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으니까요. 앨범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기점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덕분에 연달아 라인 만드는 건 힘들어졌지만요.

## CHAPTER 5

### 영향력 측면

▶ 미학적 측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주시면서 어느덧 토론의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2집 팀부터 후대에 미친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잘 주목받는 편은 아니나, 칸예 웨스트가 <Late Registration>에서 동원한 오케스트레이션은 <Yeezus> 이전까지의 앨범들에 사운드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Graduation>, <808s & Heartbreak>,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모두 현악 위주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작품들이죠.

넓게 보면 <Late Registration>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Late Orchestration>은 추후 Nas의 캐네디 센터 공연, Metro Boomin의 레드불 심포닉 공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포스트 칸예 웨스트에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Tyler, The Creator가 가장 좋아하는 칸예 웨스트의 앨범은 <ye>와 더불어 <Late Registration>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 힙합에 오케스트라를 접목했다는 그 시도 하나만으로





저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Late

Registration>처럼 본격적으로 녹여낸 작품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칸예 웨스트는 힙합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 타 장르의 음악을 믹스할지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잘 소화해 낸다면 그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죠. 2집에 서는 그 주체가 오케스트라 음악이었고요.

이 자체로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무한한 창의력과 실험정신을 심어줬다고 봅니다.

▣ 이후 발매된 힙합 앨범이나 라이브에서 오케스트라 사용에도 2집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더불어 Tyler, The Creator의 최애 앨범도 2집이라는 것과,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집 팀도 <The College Dropout>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무래도 칸예 웨스트의 영향을 받은 칩멍크 소울의 재현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영향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점이 대단하죠. 대표적으

로 최근에 앨범을 낸 Redveil, Ghais Guevara등이 생각나네요.

추가로 J. Cole, Kendrick Lamar가 사랑하는 앨범에 <The College Dropout>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 우선 <The College Dropout>의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칩멍크 소울에 있습니다.

칩멍크 소울의 대표작이며 가장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오늘날 Ghais Guevara, G Herbo로 대표되는 아티스트들이 아직도 칩멍크 소울에 해당하는 앨범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칸예 웨스트라는 래퍼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향력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류에 있던 폭력적이고 어두운 랩이 무너지고 <Graduation>이 발매될 시기에 완승을 한 것에는 <The College Dropout>의 훌륭한 빌드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OUTRO 토론 참여 소감

▶ 칩멍크 소울 작법, 칸예 웨스트라는 아티스트의 등장, Kendrick Lamar의 최애 앨범이 1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영향력 측면을 마지막으로 어느덧 준비한 토론 주제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다들 주제에 맞춰 양질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 상대 팀 앨범에 대한 장점에 대해 한번 짚어주시고, 토론에 참여하신 소감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1집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집 역시 아름다운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칸예 웨스트가 Larry Hoover 자선 공연을 하면서 1집과 2집의 수록곡을 모두 2곡씩 했다는 점!  
1집 파와 2집 파는 싸우지 말고 칸예 웨스트 아저씨처럼 둘 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 사실 "Never Let Me Down"과 "Two Words"의 칸예 웨스트 벌스는 제 최애이고, "Family Business"와 "Hey Mama"는 제 사이좋은 눈물샘 버튼들입니다.

<Late Registration>이 좀 더 훌륭하긴 하지만 <The College Dropout>의 위대함 또한 당연히 잊히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곧 발매 2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것이겠네요.

3집이 좀 뒤떨어지긴 하지만, 'He Made Graduatio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집이고 2집이고 3집이고 그냥 올드 칸예 웨스트는 사랑입니다. 올드 칸예 웨스트를 못 느끼는 힙지세대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웃음)

▶ 솔직한 심정으로 1집이랑 2집을 둘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소하게 1집을 더 들었을 뿐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토론에 참여하면서 칸예 웨스트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되는 것 이 참 좋았습니다.

▶ 저도 어느덧 나이를 꽤나 먹은 흔히 말하는 틀딱이라, 자연스럽게 옛것 즉 올드 칸예 웨스트에 더 정감이 가네요.

그 중에서도 친근한 곰돌이 커버들이 반겨주는 1,2집이 다시 한번 생각해도 최고입니다.

솔직히 어떠한 부분으로 평가 내리든 단순하게 저는 귀여운 걸 세상 최고의 미덕 중 하나라 생각하기에 1, 2집의 커버를 바라본다면 어느새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귀여움으로 본다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귀여운 게 최고다!

▶ 결국 칸예 웨스트의 이름 하에 사랑으로 뭉치게 되는 w/HOM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Vultures>도 즐겨 들어주실거죠~? (웃음)

w/HOM '앗... 아아...'

▶ (웃음)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EDITOR'S PICK

에디터  
BlackMatter 온암 SongChico 앞날 광ZA



**ALBUM** **Blade Runner  
(Original Score from the Motion Picture)**

**ARTIST** **Vangelis**

**TRACK** 1. Blade Runner (Main Title) / 2. Blush Response / 3. Wait for Me / 4. Rachel's Song / 5. Love Theme from Blade Runner / 6. One More Kiss, Dear / 7. Blade Runner Blues / 8. Memories of Green / 9. Tales of the Future / 10. Damask Rose / 11. Blade Runner (End Titles) / 12. Tears In Rain

**DATE** 1994.06.07

**EDITOR** BlackMatter

필립 K. 딕과 리들리 스콧의 인간에 대한 고찰이 신디사이저의 신 반젤리스의 손으로 꽃을 피웠다. 첫 트랙부터 몽환적으로 울려퍼지는 환상적인 신디사이저는 80년대에 바라본 2010년대 후반의 사이버펑크적인 모습을 머리속에 수놓아낸다. 트랙 중간중간 담긴 영화 속 대사들은 공간감을 자아내 마치 청자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끝까지 어둡고 SF적인 무드를 유지하는 트랙들 사이 “One More Kiss, Dear”과 같이 올드 팝과 보컬 재즈를 담은 트랙들도 별미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트랙들이 하나하나 청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영화와 분리된 예술 작품으로써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듯하다. 이 음반이 영화 음악 사상 가장 위대한 사운드트랙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보고 이 음반을 만든 경외가 담긴 즉흥성에 걸맞게 탄생한 음향으로 만들어낸 공감각일 것이다. 이 환상적인 공감각에 매료되었다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4 CD의 풀버전도 들어보자.



**ALBUM** **I Didn't Mean To Haunt You**

**ARTIST** **Quadeca**

**TRACK** 1. sorry4dying / 2. tell me a joke / 3. don't mind me / 4. picking up hands / 5. born yesterday / 6. the memories we lost in translation / 7. house settling (Ft. Danny Brown) / 8. knots / 9. fantasyworld / 10. fractions of infinity by Quadeca & Sunday Service Choir / 11. cassini's division by Quadeca & Thor Harris

**DATE** 2022.11.11

**EDITOR** 온암

대략 4-5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유튜브 래퍼에 불과하던 백인 청년 콰데카(Quadeca)가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날 줄 감히 그 누가 예상했을까. <I Didn't Mean to Haunt You>는 분명 전작 <From Me To You>보다 훨씬 진일보한 결과물이다. 아트 팝과 드림 팝을 내세운 불분명한 사운드와 포크트로니카의 구성, 그리고 "knots"로 대표되는 익스페리멘탈 힙합까지 음악적 노선을 변경한 콰데카의 프로젝트 중 전위성과 완성도 양면에서 가장 훌륭한 결과물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음향적 성취도는 걸출하나, 음반의 방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여전히 완성되었다곤 볼 수 없는 그의 보컬 역량이 발목을 잡는다. 그럼에도 그의 발전은 여전히 경이롭기만 하다. 본작을 힙합 음반이라 칭하기에 이제 너무 많은 길을 와버린 그이지만, 꼭 힙합이 아니면 어떤가? 유화로 그려낸 그의 세계는 분명 독창적인 무력감과 비애로 청자를 휘감는다.



ALBUM Validation Delux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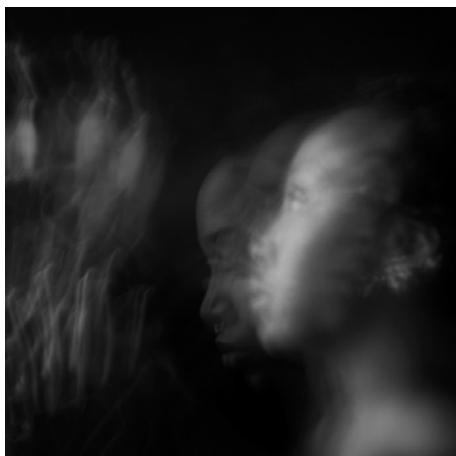
ARTIST YUNG LIXO

TRACK 1. Sucesso FM / 2. Rumo à Vitória / 3. Goddamn (Ft. biffe) / 4. I Walk (Ft. Massaru) / 5. Waiting to Fly / 6. Sonhar / 7. I'm in Love (Ft. Astrus\*) / 8. For my Family (Ft. MAIK (BRA)) / 9. Going Home (Deluxe) (Ft. The Merk (USA)) ❤️ / 10. The Lord and Me (Ft. biffe) / 11. Anjos da Guarda (Ft. biffe) / 12. We Gold (Deluxe)

DATE 2023.10.26

EDITOR SongChico

구독자 155만 명의 유튜브 채널 GEMAPLYS를 운영하는 동시에, Shittrap이라는 코미디 랩을 주로 발매하던 YUNG LIXO가 음악에 대한 진지한 면모를 처음으로 보인 앨범으로 훌륭한 침묵 소울 프로덕션과 에너지 넘치는 랩이 본 작의 내용물이다. 그가 MC VV라는 이름으로 제작했던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음악들을 패러디한 <BONDA> 시리즈는 초창기 칸예 웨스트의 느낌이 물씬 나는 'Goddamn', 'Waiting to Fly' 등의 트랙에서 남을 웃기기 위한 음악에서 현재의 음악을 위한 복선으로 거듭났고, 파워풀한 랩만큼 강한 건반 연주가 함께 나오는 'Going Home'은 이 앨범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앨범을 처음 시도한 만큼 덜컹거리는 구간이 있었지만,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YUNG LIXO는 본 작을 통해 제대로 된 걸음마를 떼며 또 다른 Joji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LBUM Exit Simulation

ARTIST Niecy Blues

TRACK 1. 1111 / 2. The Nite B4 / 3. U Care / 4. Violently Rooted / 5. Exit Simulation / 6. Exits / 7. Soma / 8. Messages From Above / 9. Lament / 10. Violently Rooted Reprise / 11. The Architect / 12. Analysis Paralysis / 13. Cascade

DATE 2023.11.10

EDITOR 앞날

<Exit Simulation>,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주의 한 소녀 니시 블루스(Niecy Blues)가 내놓은 데뷔 앨범은 하나의 탈출구를 그리기 위한 끝없는 탐색을 펼쳐 보인다. 그 탐색의 방향 역시 독특하다. 메인이 되는 R&B 보컬 위로 트립 학, 엠비언트, 재즈, 가스펠 등을 교묘하게 섞어 채색하여 지나갈 뿐이다. 과도한 리버브조차 물결치는 신디사이저와 담담한 베이스 리듬과 함께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몽환의 세상을 제공할 때임이 어찌한가. 본 앨범이 그녀의 데뷔 앨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숨 막히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이에 맞추어 악기를 조율하는 힘이 놀라울 뿐이다. 결국에 실험적이며 장르를 뛰어넘는 본작의 주 특징은 앨범의 몰입감과 서정성을 제공한다. 덕분에 그녀가 바라 마지않던 탈출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장르 위로 자유로운 비행을 그리는 것이니, 그야말로 놀라운 감각이다. 그녀의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실체 없는 공간감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청취 경험을 제공하한다. 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이한 탈출구 속으로 유도하는 것이니, 이대로 흡뻑 빠져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

**ALBUM Riot of the Kelly Green Love**

---

**ARTIST DivineDevine, Shai Nowell & 2oo7**

---

**TRACK** 1. Kangaroo / 2. Holding onto Me / 3. you N i / 4. BreakUp 2 Makeup / 5. Touch Me / 6. Deeperdarker / 7. Naturally

---

**DATE** 2021.10.27

---

**EDITOR** 공ZA

---

사운드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록, 베드룸 팝 장르의 아티스트들은 레이블과 계약을 맺기 전 본인의 이름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앨범 단위의 작품보다는 자신들의 매력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싱글 컷을 주로 내놓는 전략을 펼친다. 애틀랜타 출신의 두 흑인 인디 아티스트 DivineDevine과 Shai Nowell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1년을 기점으로 두 아티스트가 뭉쳐 2oo7이라는 팀을 결성하고 본작을 발매한다. 이 세대의 인터넷 키드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아는 듯 짧은 길이의 트랙과 다채로운 사운드가 혼재한 플레이리스트 형식의 작품 속에는 얼터너티브라는 큰 틀 아래 드럼 앤 베이스, 인디 록, 사이키델리아 등 여러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앨범을 중심적으로 이끄는 DivineDevine의 동활적인 음색의 보컬은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운드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듣는 이들을 초록빛 정원으로 안내한다.



---

**ALBUM Yokohama**

---

**ARTIST MadeinTYO & UnoTheActivist**

---

**TRACK** 1. Love Myself / 2. Talk To Me Nice / 3. See Sum / 4. Ghostrider (Ft. MDMA) / 5. Have My Way (Prada Me Down) / 6. Groceries / 7. 6 Rings / 8. Catch Me Outside / 9. Bankroll (How To Love Pt. 2) / 10. Plug (Ft. KA\$HDAMI) / 11. Jealousy / 12. Yes You Can / 13. Mexikodro / 14. Super Wavy! (Why You Try To Play Me) / 15. The Act (Better You) / 16. Margiela Man by UnoTheActivist (Ft. MadeinTYO)

---

**DATE** 2021.12.10

---

**EDITOR** 공ZA

---

현재는 The Act로 활동명을 바꾼 우노디액티비스트(UnoTheActivist)와 함께 플러그 씬에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메이드인도쿄(MadeinTYO)의 합작 믹스테잎 <YOKOHAMA>. 2020년대 힙합 씬을 대표하는 장르들은 레이지와 플러그의 흐름을 본작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며, Trenton Kyle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듀서의 참여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트랩에서 파생된 사운드 위주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식 한다. 앨범의 두 플레이어는 각기 상반된 매력을 뽐낸다. 우노디액티비스트는 멤블 랩 특유의 웅얼거림과 힘 빠진 톤을 특특히 살렸고, 메이드인도쿄는 그보다 선명한 발성을 보여주며 앨범이 지나치게 루즈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전자는 레이지의 강렬함, 후자는 미니멀한 플러그 사운드와 어울리며 드러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 사운드 특성 상 각 트랙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두 래퍼의 호흡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 fxxckin new year 🔥

blvckmvt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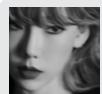


▶ 애플뮤직



▶ 스포티파이

**SONG** | **ARTIST** | **ALBUM**



Gravity

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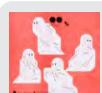
Purpose - The 2nd Album



살아가야해.

최엘비

독립음악



높은 마음 (Single Ver.)

9와 숫자들

9와 숫자들 99%, 베스트



환생

윤종신

우(愚)



what2do (Feat. Crush, Jeff Bernat)

DEAN

130 mood : TRBL



나이

윤종신

行步 2011 尹鍾信



It Could Happen To You

ryo fukui

Scenery



Don't Wanna Get Stressed

Deon Oh

Born To Suffer



돈 벌어

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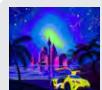
M O T O W N



Action! (feat. GRAY)

DPR LIVE

Action!



glofo i

The Quiett

glow forever



나랑 아니면

검정치마

TEAM BABY

SONG	ARTIST	ALBUM	
	Separate (Ft. Bibi Bourelly)	SAFE	GHS Pt. 2
	Sunflower (Spider-Man: Into the Spider-Verse)	Post Malone Swae Lee	Spider-Man: Into the Spider-Verse
	새해	놀이도감	숨은 그림
	Piñata (feat. G-Wiz, Mac Miller, Domo Genesis, Casey Veggies, Sulaiman, Meechy Darko)	Madlib, Freddie Gibbs	Piñata (Deluxe Edition)
	Let Em' Know	Bryson Tiller(브라이슨 틸러)	T R A P S O U L
	Good Morning	Kanye West	Graduation
	Dark Fantasy	Kanye West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Enjoy Your Life	Romy	Enjoy Your Life
	We Are Young (feat. Janelle Monáe)	Fun.(芬.)	Some Nights
	GO!	Common	Be
	Be (Intro)	Common	Be
	Jennifer's Body	Ken Carson	A Great Chaos
	RIOT (Rowdy Pipe'n) (feat. Pharrell)	A\$AP Rocky	RIOT (Rowdy Pipe'n)
	XO Tour Llif3	Lil Uzi Vert	Luv Is Rage 2 (Deluxe)
	Free	Deniece Williams	The Best Of Deniece Williams: Gonna Take A Miracle
	Waves	Kanye West	The Life Of Pablo
	По дороге разочарований	Воскресение	Легенды русского рока: Воскресение, Ч. 1

# WORLD HAUS OF #6 MATTERS



**INTRODUCING**  
공ZA 45 SongChico 앞날

**FULL REVIEW**  
45 SongChico

**CLASSIC REVIEW**  
ryuzimoto 온암 45

**FEATURED**  
앞날 공ZA 송치코 온암 류지모토

**EDITOR'S PICK**  
BlackMatter 온암  
SongChico 앞날 공ZA

**KHL**



[khlhomofficial@gmail.com](mailto: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https://www.instagram.com/@hausofmatters)